

6·25참전용사, 프랑스 최고 무공훈장 받았다

박동하·박문준 참전용사 프랑스 군사훈장 서훈

6·25전쟁 당시 프랑스 부대 소속이 사가 프랑스 부사관과 병에게 수여
었던 박동하(93), 박문준(90) 참전용 되는 최고 무공훈장인 군사훈장을

받았다.

박동하, 박문준 참전용사는 지난 달 11일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립 프 로프 프랑스 대사로 부터 영예의 군

사훈장을 전달 받았다.

이날 서훈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 처장이 함께 참석해 “두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한국인 장병을 잊지 않고 프랑스 군사훈장을 수여해 준 프랑스 정부에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눈빛, 손짓으로 소통하며 전우애 확인”



박동하 참전용사는 6·25전쟁이 발 발 후 당시 고등학교 졸업자 100여 명 과 함께 대구에서 훈련을 받고 유엔 군 프랑스대대에 배속됐다.

1951년 2월 11일 프랑스대대에 배 속된 그는 소총수보병으로 지평리전 투, 단장의 능선 전투, 931고지전투 등에 참전해 뛰어난 사격실력으로 1953년 프랑스 동성훈장을 받았다.

박동하 참전용사는 프랑스대대에 서의 생활을 회고하며 “프랑스군은

국군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료 로 존중했고, 프랑스군과 국군은 서 로를 도우며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면서 “비록 서로의 언어를 잘 이해하 진 못했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마음 이 통하는 전우애를 갖게 됐다”고 말 했다.

박동하 참전용사는 “10여년 전 프 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 파리를 방 문해 큰 환대를 받은 기억이 생생하 다”며 “2018년 화살머리고지 남북공 동 유해발굴에서는 당시 전투의 기억 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현충일 서울 고척스카 이돔에서 열린 야구경기에 초청받아 시구를 하고, 청와대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전우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낭독 하는 등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 고 있다.

“훈장, 당시 전우들과 함께 받은 것”



박문준 참전용사도 고등학교 졸업 과 함께 대구에서 훈련을 받고 1951 년 2월 11일 유엔군 프랑스대대에 배 속됐다.

당시 위생병이었던 박문준 참전용 사는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부상병 을 이동시키는 중 적의 포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를 받은 후 제대 권유를 뿌리치고 대 대로 복귀해 끝까지 전우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켰다.

박문준 참전용사는 아직도 지평리 전투에 임하는 프랑스대대 몽클라르 장군의 연설을 기억한다며 “몽클라 르 장군은 ‘절대 죽지 말고 살아남아 야 하며, 살아남아야 옆 사람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비겁해지지 말라. 비 겁하면 패배한다’고 연설했는데 그 날의 가슴 뜨거운 감정은 지금도 잊 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전장도 마다하 지 않았던 용맹한 프랑스군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롭다”면서 “프 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이 군사훈장 은 그때의 전우들과 함께 받은 것이 라 여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동하 참전용사와 함께 매년 프랑스 참전 행사에 참석하는 등 혈 맹으로 이어진 한국과 프랑스 우호 의 산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보훈현장 탐방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

울산보훈지청(지청장 김상출)은 울주서부 청소년수련관(관장 송연옥)과 함께 지난달 7~8일 ‘우리고장 독립만세운동을 찾아서’를 주제로 보훈현장 탐방 브이로그를 촬영했다. <사진>

참여 학생들은 울산의 현충시설인 3·1운동 사적비를 방문해 애국지사 손자녀로부터 언양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어 병영 삼일사에서 병영독립만세운동과 재 현행사에 대해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학생들은 당시 병영4·4만세운동의 장소인 일신학교(현 병영초등학교)를 방문한 후, 웅 촌면 이재락 선생 생가에서 남창지역 독립만 세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현장을 촬영했다. 이 번 탐방을 통해 제작된 브이로그는 관내 학교 에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기관 SNS를 통해 적 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봄꽃 키우며 코로나 극복해요’

경기북부보훈지청(지청장 황후 연)은 지난달 16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내 집에서 봄꽃축제’ 행사를 열고 재가복지대상자 456 명에게 봄꽃 화분, 꽃꽂이용 꽃, 콩나물·새싹보리 키트를 선물했 다. <사진>

한전경기북부분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훈가족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 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 로를 잃어버린 지역 화훼농가를 돕 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봄꽃을 선물 받은 보훈가족 어르



신은 “예쁜 꽃이 있으니 집안이 화 사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진다”며 “봄을 한껏 느낄 수 있어 행복한 시 간이 됐다”고 말했다.

황후연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든든한 보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지증 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생활용품 ‘행복박스’ 170개 전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지청장 윤명 석)은 지난달 22~23일 다양한 구성 의 생활용품세트 ‘행복박스’를 후

원반아 취약계층 고령 보훈대상자 170가구에 전달했다.

아성다이소 후원으로 마련된 행 복박스는 칫솔, 치약 등 위생용품 과 수세미, 고무장갑 등 생활필수

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대상 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윤명석 지청장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준 협 찬업체에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